

광주 대회 유치로 본 한국수영 세계수영선수권 도전사

1991년 첫 출전…2007년 박태환 깜짝 금메달

한규철·이남은 등 단 4명만 결승무대

선수발굴·육성 '제2의 박태환' 찾아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는 그동안 한국 수영이 다가서기 어려운 무대였다.

한국수영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 국제무대에 첫선을 보았다.

1973년 시작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의 경우 1991년 호주 퍼스 대회에서 처음 출전했다.

국제 수영연맹(FINA)이 기준기록을 엄격하게 적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선수만 출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1986년 마드리드 대회부터 기준기록을 없애면서 한국 수영 선수들에게도 출전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1991년 세계선수권 첫 출전=

1991년 당시 한국수영의 대들보로 꿈틀던 고교생 이윤안과 지상준이 한국인 첫 세계대회 출전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이윤안은 약 200m에서 16명이 겨루는 준결승까지 올라 2분02초57로 12위를 차지했다.

이후 1998년 호주 퍼스 대회 때 한규철이 남자 접영 2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8명만이 나서는 결승에 진출, 7위를 기록했다.

한규철 이후 세계선수권대회 결승 출발대 위에 서 본 한국 선수는

고작 3명 더 나왔다.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에서는 이남은이 한국 여자선수로는 처음으로 여자 배영 50m에서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007년 호주 멜버른 세계 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위업을 이뤘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도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듬해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유형 200m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한 박태환은 2009년 로마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자유형 200m·400m와 1500m에 출전했지만 세 종목 모두 결승진출에 실패하며 쓴맛을 봤다. 박태환은 2011년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세 계정상 자리를 차지했다.

◇장기적인 선수 발굴과 육성 절실=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한국 수영으로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고 권위의 세계대회를 유치한 만큼 주최국에 걸맞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대선수 선수들과 체육계는 장기적인 선수 발굴과 육성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최소한이라도 개최국의 성적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수영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2019년까지 남은 6년은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닌 듯하다.



'마린보이' 박태환이 지난해 런던 올림픽에 참가해 힘차게 스타팅하고 있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며 따라 한국수영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수영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최소한이라도 개최국의 성적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수영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2019년까지 남은 6년은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닌 듯하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은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은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수영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책을 경험한 박태환은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았으

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지역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